

물 절약 방안

자치단체명 : 대한민국 충청남도

발표자명(소속명) : 이윤상(대천중 비추미조)

활동명: 물 절약 방안

활동 기간 : 2004. 6. 25 ~ 2004. 7.6

활동 장소 : 충남 보령시 대천천 일대,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 관리사업소

활동 참가인원수 : 6명

활동을 시작한 경위 :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

활동 결과 : 세계와 우리나라의 자원 소비 실태를 알게 되었고, 환경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.

발표 요지

*** 물 절약 방안 ***

지구상 수자원의 2.6%에 불과한 담수는 빙하, 지하수가 대부분이고 호수, 하천수 등의 지표수는 고작 1.2% 정도로 인류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상 수자원의 0.03%에 불과하다.

물 기근 국가 : 지부타·쿠웨이트·몰타·바레인·바베이도스·싱가포르

물 부족국가: 한국·리비아·모로코·이집트·오만·키프로스·남아프리카공화국
·폴란드·벨기에·아이티

<표. 1> 주요국가의 생활용수 사용실태

<출처 ; 1997. 환경부>

구 분	단위	한국	일본	영국	프랑스	독일
1인당 물소비량	L/일	409	367	331	215	177
1인당 강수량	톤/년	2,935	5,281	4,624	7,474	3,275

*** 물 절약할 수 있는 사례 ***

- 자동식기 세척기는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한다.
- 세탁기도 빨래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한다. [현재 보급되어 있는 세탁기의 90% 이상이 10kg 급이며, 4인 가족의 하루 평균 세탁물 배출량이 3kg 수준이므로 적정용량은 6kg 급입니다. 현재 잘 쓰고 있는 세탁기를 작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세탁물을 모아 빨면 경제적이고 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3kg씩 2회에 나누어 빨래를 했다면 이제 빨랫감을 모아 한 번에 세탁하세요. 물 소비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 가까운

일본의 경우에도 5~8kg 급 세탁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.]

-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한다.
-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도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한다.
- 먹는 물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것이 수돗물을 받아먹는 것 보다 훨씬 절약된다.
- 수도꼭지 등의 누수손실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.
- 화장실의 변기에 물감 등을 이용하여 누수를 확인한다.
- 변기에 담배꽂초나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.
- 변기의 물통에 플라스틱 물병이나 벽돌을 넣어 사용한다.[현재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변기의 용량은 13리터 급이며 1일 평균 변기 이용 횟수를 7회(대변1회, 소변 6회)라고 가정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일 물 사용량은 225리터 수준입니다. 하지만 ‘대소변 구분형 절수부속’을 설치하면 기존의 13리터급 변기에 비해 67리터(30%정도), ‘사용수량 조절형 절수부속’을 사용하면 40리터(15%정도) 절수가 가능합니다. 물론 절수부속 대신 1.5리터 용량의 물병을 물탱크 안에 넣어두어도 변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.]
- 샤워 사용시간을 줄인다.
-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를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. [5분간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통상 6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일반 샤워헤드는 최대 유량이 1분당 12리터를 초과합니다. 샤워헤드를 새로 바꿀 때는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도 물줄기가 세게 나오는 ‘절수형 샤워헤드’를 골라 설치하면 최대 유량이 1분당 7리터 정도에 지나지 않아 40%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절수형 샤워헤드는 설치가 간단해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값도 저렴합니다.]
- 목욕시 욕조의 물을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한다.
- 양치할 때에는 칫솔에 물을 적신 후 컵을 사용한다.
- 면도시에도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는다.
-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한다.